

[차차기 학회장 인사]

(사)한국국제경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한 연말연시, 회원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사)한국국제경영학회 차차기 학회장 부산대학교 김석수입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국제경영전략 분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대한경영학회, 한국통상학회 등 약 10여 개 유관 학회의 평생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장 직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부터 약 8년 동안은 한국무역통상학회 편집위원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경영학회, 한국무역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 여러 학회의 부회장과 편집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약 8년 동안, 대학원장, 기획처장, 부총장 등의 대학 내 보직 수행과 함께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 RIS-부산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등 다양한 교외 봉사활동을 겸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이유로, 이 기간 동안은 학회 활동을 소홀히 하였으며 학회 회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교분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공의를 위한 헌신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교수자·연구자로서의 저의 삶에서 아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별첨. 김석수의 걸어 온 길]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한국국제경영학회 차차기 학회장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런 일이지만, 학회 발전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차기 회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내년을 학습의 시간으로 활용해서 차차기 학회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학회경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첫째, 저의 타고난 역량 부족과 흠결은 부단한 노력으로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힘으로 부족하면, 차선출해(借船出海) 전략이라도 구사하겠습니다.

둘째, 선대 학회장님들의 '리더십과 학회 경영철학과 경영노하우'를 학습하고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셋째, 학회의 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차근차근 구상하여, '긴 호흡의 학회경영'이 이루어지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사업'을 임기 전에 수립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회 운영과 전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무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임기 전부터 다양한 재정원천을 발굴하겠습니다.

여섯째, '다양성·개방성 지향의 건강한 학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백분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R·R·C(제거·감축·강화·창조)를 학회경영에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한국국제경영학회 회원 여러분,

코로나 19 팬데믹과 엔데믹, 4차 산업혁명과 AI,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의 지속 등 유래 없는 글로벌 거시적 환경의 격변성은 국경 없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엄청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 보다는 중요합니다.

안젤라 데이비스는 "벽을 밀면 다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협과 기회는 공존하는 것이며, 결과는 전략의 수립과 실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사)한국국제경영학회의 미래와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경영에 유의미한 지식 창출과 확산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김 석 수 드림

[별첨. 김석수의 걸어 온 길]

교수자와 연구자

부산대학교 교수로 국제경영전략 분야 연구 및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

2000년~2023년까지 동의대학교 교수로 약 4년간 근무하였고, 2003년~현재까지 부산대학교 교수로 국제경영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제자 중 다수가 미국과 국내 대학의 교수로 국책연구소, 공공기관, 유수의 기업 등의 연구원으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어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 8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의 다양한 정책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여년 이상의 대내외 봉사를 올해로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기간은 교수자·연구자로서 학술활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학 내에서 수행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내 봉사

부산대학교 부총장으로 대외협력 체계 구축 및 고등교육정책 기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대외협력부총장으로 봉사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대학을 둘러싼 중앙 및 지방 정부, 산업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과 협업 파트너십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도입은 대학, 교육부 및 국회 등과 파트너십이 작동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교육부 지방대발전실무TF’를 이끌면서, GKU-10 프로젝트, GAU-30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역대학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대학사업 정책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거점국립대 재정지출TF’ 활동을 하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확대와 지방대학성화 사업 등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앙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국립대학육성사업단장, 지역선도대학사업본부장으로

대학재정기획 총괄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특수목적사업에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사업이 추진되던 시기였습니다. 2017년 PoINT사업과 지역선도대학사업을 설계하여 수주에 성공하였고, 이후 2022년까지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모든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기획처장/캠퍼스기획관리본부장으로 대학발전전략 기획·추진 및 대학 현안 해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기획처장으로서, 대교협 대학인증평가, 교육부 기본역량진단 등 각종 대학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재정지원사업의 설계·실행·평가·개선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회계법」 개정, 효원문화회관 해지 시 지급금(824억 원) 확보 등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었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을 위한 「지방대육성법」과 「혁신도시법」 개정 기초 작업을 하였습니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방문, 대학, 공공기관과 연석회의 등을 거치면서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로 발전기금 모금 전략 수립 및 실행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재)부산대학교 발전기금 상임이사로 발전재원 모금 전략을 수립·실행하였습니다. GS 발전기금, 창원 한마음병원 발전기금, 부산은행 발전기금 등 고액 기부금을 확충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미래인재개발원장으로 학생 커리어개발 및 취창업전략 기획 추진

2016~2017년에는 학내의 미래인재개발원의 원장직을 수행하면서 학생의 전주기 경력개발 및 취창업 지원 등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기획부처장으로서 대학일반재정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장/부원장으로 국제전문인력 양성 허브 구축

2010부터 2012년까지 국제전문대학원장으로써 봉사하면서, 부산대학교와 대학원의 글로벌화와 대외협력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해운항만국제물류 융합인력양성사업, KIEP - GPAS 사업 등을 유치하며, 국제전문대학원의 고급 국제지역전문가 및 국제물류전문가 양성의 토대를 만들었고 비수도권의 유일무이한 우수 대학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전에, 2004부터 2006년까지 국제전문대학원 부원장으로 봉사하면서, 국

제전문대학원 체제 조기 안착과 함께 산업계 대표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축적된 산업계 인적 네트워크는 현재 더욱 강화되어 지역현안이나 대학 문제를 함께 숙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계 중심의 네트워크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발전과 국가 및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 봉사

지역혁신사업(RIS사업), 부산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으로 부산지역 22개 대학의 지역혁신사업 총괄

2023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총괄·기획하여 연 429억 원(5년간 총 2,145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였고, 현재까지 총괄센터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3대 핵심분야에 지역 15개 대학과 공유대학(BITS)을 설립하고, 다양한 R&D 활동을 지원하여 탁월한 지역인재 양성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대학이 유무형의 자원을 공유하여 지역 소멸과 지역대학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으로 전국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 조정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대학혁신지원사업 총괄협의회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전국의 주요 143개 대학의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 성과확산 등 제반사항들을 총괄하면서, 한국연구재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사업이 지속가능한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때,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 집행 등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크고 작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익과 공의를 생각하면서 각종 힘든 난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한국연구재단 비상임이사로 우리나라 연구지원 준정부기관 경영에 기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학술연구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을 관장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비상임이사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사직 수행 중, 한국연구재단의 경영방침과 학술연구, 인력양성사업 체계 등에 대한 혁신적인 제언을 통하여 준정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우수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거점국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회장으로 거점국립대학교 현안 대응

2018년부터는 거점국립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와 일선 대학과의 가교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거점국립대의 현안 해결과 국립대학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 부회장 및 경상권역 기획처장협의회회장으로 대학 현안 전략적 대응

2020년부터 전국 대학기획처장협의회의 부회장 및 경상권역 기획처장협의회 회장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별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교육부와 일선 대학 간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의사결정과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경험하였습니다.

국립대학법인 평가단장 등 다양한 교육부 위원회 위원으로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설계 및 평가에 참여

2022년부터 현재까지, 국립대학법인 평가(단장)위원으로 대학법인의 평가를 통한 고등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립대학법인 설립심의위원,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계획 설계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요 위원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평가자문위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국가균형위원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시각과 자세를 확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제언과 자문 참여는 개인으로서는 국정 이해도를 높이면서, 지방과 지역에 대한 국가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고등교육정책의 연계성과 영향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자체와 교육부의 협력사업 평가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혁신에 지역대학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장, 유관 학회 부회장, 편집위원장 등 학회 및 학술발전 기여

2015년, (사)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회장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부족한 학회

재정 개선에 힘썼으며, 회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학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한국국제경영학회 부회장, (사)한국경영학회 부회장, (사)한국무역학회 부회장, (사)한국무역통상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등 다양한 유관 학술단체 봉사 및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대내외 봉사활동을 수행하면서 학술활동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상

교육부장관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 한국경영학회장상 등 수상

2019년에는 교육부장관상, 2020년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학술공로상 외 여러 유관학회에서 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